

주가연동형 상품,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시장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시중 자금이 저축에서 투자로 급격히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중은행 대부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1% 후반에서 2% 초반대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 여파로 일부 남아 있는 연 2%대 상품이 자취를 감추며 1% 중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적금금리도 연 2% 마지노선 깨져 =시중은행들은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더 높은 정기적금 상품마저 금리를 연 1%대로 속속 낮추고 있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내린 다음 날인 13일 연 2.0%였던 3년 만기 일반정기적금의 금리를 연 1.9%로 인하했다.

또 같은 날 외환은행은 '외환 나이스골프적금'의 금리를 1.9%로, '납버넌 월복리적금'과 '매일클릭적금'의 금리를 2.1%로 0.2%포인트씩 인하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7일 적금 금리를 0.1%포인트씩 내렸다. 국민은행의 '가족사랑 자유적금'과 일반정기적금의 금리는 연 1.9%로 낮아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30일 주력상품인 'S드림 적금' 금리를 연 1.9%로 인하했다.

지방은행인 경남은행의 '어머님 자유적금'과 대구은행의 '스마트 검지적금'도 연 금리가 각각 1.95%, 1.98%로 2% 아래로 내려섰다.

광주은행의 경우 '플러스모아적금'과 '스마트모아Dream정기적금' 금리가 지난달 26일 기준 연금리가 각각 2.40%와 2.50%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준 금리인하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금금리는 '플러스모아예금'과 '그린스타트예금' 모두 연금리가 각각 1.73%와 1.83%로 1%대로 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주요 은행에서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더 높은 적금 상품마저도 금리를 연 1%대로 낮추면서 조만간 예·적금 금리 모두 1%대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고객의 카

■ 적금금리도 연 1%대 ... 현명한 투자법은

**예·적금 실질금리 마이너스
외환·국민은행 2%선 깨져**

**파생결합사채·오피스텔 등
중위험·중수익 상품 투자**

드 실적과 연동시키는 등 교차 판매와 우대금리 제공을 통해 예·적금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돌 만해=전문가들은 예·적금 위주의 저축형 금융소비자들이 당장 투자 성향을 바꾸기 어렵다면 '중위험·중수익' 상품부터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것은 ELS(주가연계증권), ELT(주가연계선박), ELF(주가연계펀드), ELB(파생결합사채) 등 주가연동형 상품이다.

ELS는 만기에 국내나 해외의 주가지수나 특정 종목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이 계약 조건을 벗어나지 않으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원금손실의 위험이 낮고, 수익률은 연 4~6% 수준으로 예·적금 이자보다 월등히 높다.

ELS 발행액은 지난 2월 한 달간 6조6500억원을 뛰어 넘으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61% 급증했다.

저금리 시대에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연 3~4%대 수익을 내는 ELB도 발행액이 올해 1월 21일 982억원이었으나 이후 단기간에 706억원(71.9%)이 늘어나 1천687억원으로 '천억원대 주식 부자' 대열에 합류했다. 정명준(39위) 헬바이오테크 대표이사와 윤희중(40위) 위닉스 대표이사는 보유 주식 가치가 각각 260억원(27.2%), 368억원(46.9%) 늘어난 1215억원과 1154억원으로 역시 천억원대 코스닥 주식 부자가 됐다.

또 코스닥 천억원대 주식 부자 중에서 3명은

당주 펀드에는 약 3조원의 자금이 몰렸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낮아진 금리는 자산가들의 자금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급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나고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오피스텔이 유망 상품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으로 공실률이 높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시중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예금을 유치하는 편이 유리하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연 2.5% 수준이며, CMA는 연 2% 초반대의 금리를 제공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남아있던 연 2%대 금융상품까지 자취를 감추면서 금융소비자의 현명한 투자전략이 절실히 됐다. 시중은행 창구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통장 빌려만취도 최대 징역 3년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금융감독원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대표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지난 13일자로 소비자정보를 발표했다.

대표통장은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통상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도구다. 피상사기에 이용된 대표통장은 2012년 3만3천496개, 2013년 3만8437개, 지난해 4만4705개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표통장을 단순히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달아오른 코스닥 ... '1천억대 주식 부자' 51명 역대 최다

재벌닷컴 조사 ... 다음카카오 김범수 의장 1조6천억 1위

올해 코스닥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천억원대 코스닥 부자'가 사상 처음으로 50명을 돌파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코스닥 부자들의 보유 상장주식 가치를 조사한 결과 1000억원 이상의 코스닥 부자 수는 9일 기준 모두 5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김판길 산성엘엔에스 회장과 정명준 헬바이오테크 대표이사와, 윤희중 위닉스 대표이사와, 조정일 코나아이 부회장, 안재일 성공밴드 대표이사와, 송호근 와이저-원 대표이사 등의 코스닥 부자들은 연초 수백억원대 주식 부자에서

이번에 '코스닥 천억원대 부자'에 올랐다.

코스닥 부자 순위 26위인 김판길 산성엘엔에스 회장은 보유 주식 자산이 올해 1월 21일 982억원이었으나 이후 단기간에 706억원(71.9%)이 늘어나 1천687억원으로 '천억원대 주식 부자' 대열에 합류했다. 정명준(39위) 헬바이오테크 대표이사와 윤희중(40위) 위닉스 대표이사는 보유 주식 가치가 각각 260억원(27.2%), 368억원(46.9%) 늘어난 1215억원과 1154억원으로 역시 천억원대 코스닥 주식 부자가 됐다.

또 코스닥 천억원대 주식 부자 중에서 3명은

3개월도 안 돼 보유 상장주식 가치가 1000억원 넘게 불어났고 보유 주식 가치가 연초보다 20% 이상 늘어난 부호도 13명이나 됐다. 코스닥 부자 51위인 김대영 슈피겐코리아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자산은 4420억원으로 올초보다 1722억원(63.8%) 불어났다.

김익래 다우그룹 회장(189위)은 주식 자산이 2054억원으로 연초보다 889억원(76.3%) 늘어나, 코스닥 부자 중에서 주식 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코스닥 부자 1위인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보유 주식 가치는 1조619억원으로 연초보다 1056억원(6.1%) 줄어 들었다.

/연합뉴스



김경신 <NH투자증권 수원지점 부장>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p>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 (중앙로 196번길 15-16)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사거리에서 카톨릭센터쪽 30M 이전 확장개업 대표 임해택 ☎010-2681-3113</p>	<p>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p>	<p>아트타운갤러리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아트타운갤러리 전시대관 접수합니다. 관장 정인 ☎062)232-7141 010-5608-1878</p>	<p>일등모바일 동구 금남로 2가7-4 (구)동구청 1층 핸드폰·악세사리 도매 전문점 대표 전민수 ☎010-4655-9689</p>	
<p>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건너편 오리한방, 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웃담, 오리 장어탕 ☎062)401-5253</p>	<p>무등공인중개사 북구 룬동 938-4 주공1차 2차프란체아파트건너편 아파트, 주택, 상가건물, 분양권 매매임대 전문 대표 권덕우 ☎010-9222-3339</p>	<p>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변지유업상실업) 부대찌개, 찹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p>	<p>아워호텔 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샘i제휴점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abs도어 연동형 싱크대 불박이장 대표 김창두 ☎010-6635-7224</p>	<p>골든전당포 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 축산농협 건너편 귀금속 전당 고급시계 전당 대표 김춘복 ☎011-624-9200</p>
<p>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p>	<p>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장충동왕족발보쌈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 족발 소·중·대, 보쌈김치 신속한배달, 카드결제 가능 ☎1588-3300</p>	<p>그린이용원 북구 양산동 오리공영이 뒤 대표 성옥희 ☎010-3225-2735</p>
<p>시골식당 동구 금동 15-2 (구시청에서 병무청쪽) 생삼겹, 오리로스, 생선매운탕, 회무침 대표 조공숙 ☎062)227-4565</p>	<p>고전방 동구 금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토담 광산구 비야소방서와 흥흥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아구찜, 흥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 대표 김광수 ☎062)954-1333</p>	<p>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꾸꾸미, 봉장어, 사브사브, 돌핀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p>	<p>송하한정식 동구 금남로 2가 10번지 청국장, 한정식, 백반전문 ☎062)225-9278</p>
<p>보성존제산일월사교원 북구 두암동 561-5홀플러스건너편 광주은행건물 4층 인해, 풍수, 사주연구소 연구원 원장 이성호 ☎010-8278-0030</p>				